

# 근대의학의 씨앗 뿌린

## ‘부연사’

(富彦士 1869~1911)

글 | 박성래 \_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명예교수 parkstar@unitel.co.kr



**리**하르트 분쉬(한국명 부연사는 1901년부터 4년간 고종의 시의로 일했던 독일인 의사다. 19세기는 독일 의학이 세계를 선도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독일 의사를 조선 왕실에서 초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1901년 11월 2일 제물포(지금 인천) 항에 도착한 분쉬는 1905년 4월

까지 거의 4년간 서울에 살며 명색은 시의였으나, 실제로 고종의 건강을 위해 일한 것은 별로 없는 듯하다. 그냥 구색 갖추기 위해 서양 의사 하나를 어의로 두었던 듯하다.

### 처음으로 근대적인 방역대책 입안·실행

하지만 분쉬의 서울 근무 4년은 우리 의학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기고 있다. 대한의학회와 독일계 제약회사인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1990년에 이미 ‘분쉬의학상’을 제정하여 해마다 우리 의학상의 뚜렷한 업적을 낸 의학자와 과학자에게 상을 주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고종 임금의 시의’로 이 땅에 온 분쉬는 그의 본래 목표인 임금의 담당 의사로서는 큰 역할을 할 수 없었지만, 우리 의학사에 큰 업적을 남겼던 것이다. 우리 선조들의 의학 수준이 아직 형편없던 시절에 그는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는 그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예방조치를 취하는 일을 도와주었다. 또 그는 전통적 의사들이 진을 치고 있던 왕실에 근대의학의 혜택을 주기 어려웠지만, 오히려 조선의 민간인 진료에는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다. 그보다 좀 전에 와서 활약했던 미국 의사 앨런(안 렐, 1858~1932), 캐나다 의사 애비슨(어비슨, 1860~1956) 등과 함께 이 땅에 근대의학의 씨앗을 뿌린 인물로 꼽을 수 있다.

그는 1869년 독일 쉐레지엔의 히르슈베리크에서 제지공장 주인

의 아들로 태어나 1894년 그라이프스발트 대학에서 의사 자격을 얻었다. 유명한 의학자 비르호 교수 아래서 수련의로 일하던 그는 일본왕실의 시의로 도쿄대 내과 교수로 있던 벨츠의 주선으로 1901년 11월 조선에 부임해 왔다. 약 4년간 고종을 실제로 진료도 했고, 임금이 자주 감기 걸리는 원인을 집무실의 비과학적인 난방 구조와 비단옷의 열전도 문제 등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임금에 대한 진료는 이 정도 뿐이었고, 오히려 서울 시내에서 개인 진료소를 열어 당시 많아지고 있던 외국인과 일부 조선인을 위한 의료봉사에 크게 기여했다.

예를 들면 1902년 8월 16일 그의 일기를 보면, 그는 조선에 온 후 처음으로 아이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의 여성은 아직 남자 의사를 기피하여, 이 경우 심한 열과 진통이 사흘이나 계속되자 분쉬에게 데려오기는 했으나, 골반이 좁아 아기는 죽고 태아를 절단해 꺼냈다고 한다. 같은 주일에 프랑스 여인의 해산도 도왔는데, 역시 골반 비정상으로 난산이었지만 그녀는 순산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심각한 의료 의식을 엿볼 수 있다. 또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도움에 대해 그는 조선인 환자 가족으로부터 참외 한 개를 받았다고 써놓고 있다. 실제로 당시 많은 조선인에게 그는 여러 가지 진단과 치료를 해주었으나, 거의 보수를 받는 일은 없었다. 아직 의사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의료 수가에 대한 규정이나 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껏 달걀이나 닭을 치료비로 내놓는 경우가 있던 시절이었다.

그는 당시 서울에 살고 있던 몇 안 되는 의사 가운데 외과 수술에 가장 탁월했다고도 알려져 있다. 또 분쉬는 근대적인 방역대책을 처음으로 입안하여 실행했던 의료 정책가이기도 했다. 1902년 서울에 육군병원이 생기자 분쉬는 애비슨 등과 함께 고문을 맡았는데, 그 해 여름 콜레라가 만연하자 방역에 필요한 항목을 구체적으

로 나열한 건의문을 내부대신에게 보내고, 직접 방역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 일기·편지 등에 흥미로운 조선의 실상 기록

분위는 1900년대 초의 우리 나라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그가 사망한지 65년 만인 1976년 그의 딸이 편찬해 낸 그의 전기인 한국에서는 ‘고종의 독일인 의사 분위(학고재, 1999)’라는 이름으로 번역돼 나왔기 때문이다. 1901년 조선에 온 그는 뒤에 그의 부인이 된 마리 솔과 자신의 부모 등에게 편지를 보냈고 일기도 썼다. 이런 자료를 엮어낸 이 책은 독일어로 ‘Arzt in Ostasien(1976)’인데 ‘동아시아의 의사’란 뜻이다. 이 책을 낸 딸은 1991년 ‘분위상’이 제정되면서 한국 초청을 받았지만, 시상식 직전 작고했다.

그의 일기와 편지는 1900년대 초 조선의 실상을 흥미롭게 전하고 있다. 서양인들의 눈으로 볼 때 미개한 나라일 뿐이었던 조선에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던가를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많다. 1901년 11월 2일 조선에 온 분위는 1905년 4월 말 조선을 떠났다.

원래 그는 1901년 5월쯤 조선에 초청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3년 계약으로 고종의 독일주재 명예영사 마이어와 분위 사이에 맺어졌다. 마이어는 당시 중국 몇 곳과 인천, 그리고 런던 등에 큰 상관을 벌리고 있던 국제무역상사의 주인이었고, 그의 조선 대리인은 발터였다. 6월에 런던을 방문했던 분위는 이탈리아로 가서 9월 3일 독일 기선 ‘교주호’를 타고 발터와 함께 조선으로 떠났다. 10월 25일 상하이에 도착했고, 11월 2일 인천항으로 들어왔다. 분위 기록에 의하면 제물포에 도착한 날은 일본왕의 생일이었는데, 5천 명이 축하를 했다고 한다. 인천에 이미 일본인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1884년 문을 연 ‘마이어상사’는 1907년에 ‘발터상사’로 바뀌고, 다시 ‘세창양행’이 되어 구한말 조선에 서양 문물을 들여오는 주요 창구 노릇을 했다.

1901년 연말의 일기를 보면, 당시 조선에는 서양인 60명 정도가 살았고, 독일인은 7명뿐이었다. 그 가운데는 고향이 같은 에케르트(1852~1916)도 있었는데, 그는 1879년부터 1898년까지 일본에 살다가 1901년 조선군악대 악장이 되었던 인물이다. 당시 애국가를 작곡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미혼이었던 분위는 그의 딸 가운데 한 명과 데이트도 했던 듯하다. 또 백만장자 콜브란의 딸 이야기도 등장하지만, 막상 그는 조선에 있는 동안 마땅한 규수를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다.

분위는 입국한지 여러 달 만인 12월에서야 언덕 위의 집을 구입하게 되었다. 여자 선교사 2명이 살던 곳이었는데, 수위, 경호원, 요리사, 사환 등을 그대로 인수했고, 부엌, 빨감, 석탄도 인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어찌 보면 후진국에 들어와 호사스런 생활을 하게 되었던 셈이다. 곧 그는 고종을 배알했고, 통역을 배당받았는데 김치 냄새를 지독하게 풍기던 그 통역은 혁명사상을 가졌다하여 곧 체포되었다고 한다. 이어서 그는 당시 난방 없는 조선의 옥살이가 얼마나 혹독했는지도 소개하고 있다. 밤사이 17명이 얼어 죽었고, 그 전 해에는 하루 사이 40명이 얼어 죽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는 혼자 살면서 자주 손탁 호텔에서 가서 식사를 해결했다. 독일 여인 손탁(1854~1925)이 서울에 세운 최초의 서양식 호텔은 고종의 절대적 신임을 얻은 그녀가 1895년 고종으로부터 서울 정동의 땅과 집을 하사받아 만들었는데, 이 집은 외국인들의 집회소 구실을 하였고, 청·일전쟁 뒤에는 미국이 주축이 되어 조직한 정동구락부가 되어 서울의 외교 중심지가 되었다. 1902년 지은 이 호텔은 1917년 이화학당에서 구입하였다. 또 1904년 3월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바로 그 호텔에서 만찬을 했는데, 분위도 초대되어 갔지만 그와 대화는 거의 못했고, 함께 참석했던 민영환은 불쾌한 표정이었다는 기록도 남기고 있다.

### 일본 압력으로 조선 떠나며 3등 훈장 수여

1905년초 제물포에서 러·일전쟁이 시작되자 분위는 더 이상 조선에 남아 살기가 어려워졌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1905년 1월 고종은 통역 고희성(1876~?)씨를 보내 그에게 병원을 지어주겠다며 그대로 머물기를 청한 듯하지만, 그는 10만엔과 애비슨이 사용하던 제중원을 달라고 했다. 당시 그 병원 시가가 3만2천 엔이었다고도 적고 있다. 여하간 이런 접촉은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한 채 분위는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압력으로 1905년 4월 일본으로 떠났다. 1905년 4월 23일 조선을 떠나며 배 위에서 부모에게 쓴 편지를 보면 고종은 그에게 1년치 월급과 3등 훈장까지 주었다.

일본에서 그는 벨츠 박사 후임으로 도쿄대 교수 자리를 원했지만, 실패하고 2년을 일본에서 지내다가 독일로 돌아갔다. 그는 1908년 다시 아시아로 진출하여 중국의 독일 조차지인 청두에 가서 일하다가 열악한 병원 환경과 격무로 장티푸스에 걸려 1911년 3월 41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했다. 부인은 딸(3)과 아들(1)을 데리고 독일로 귀국했는데, 아들은 곧 죽고 얼마 후 부인도 사망했다. 뒤에 책을 남긴 딸은 어려서 고아가 되어 어렵게 살았다. ❸